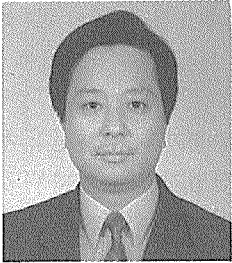


'90年代의 情報産業 政策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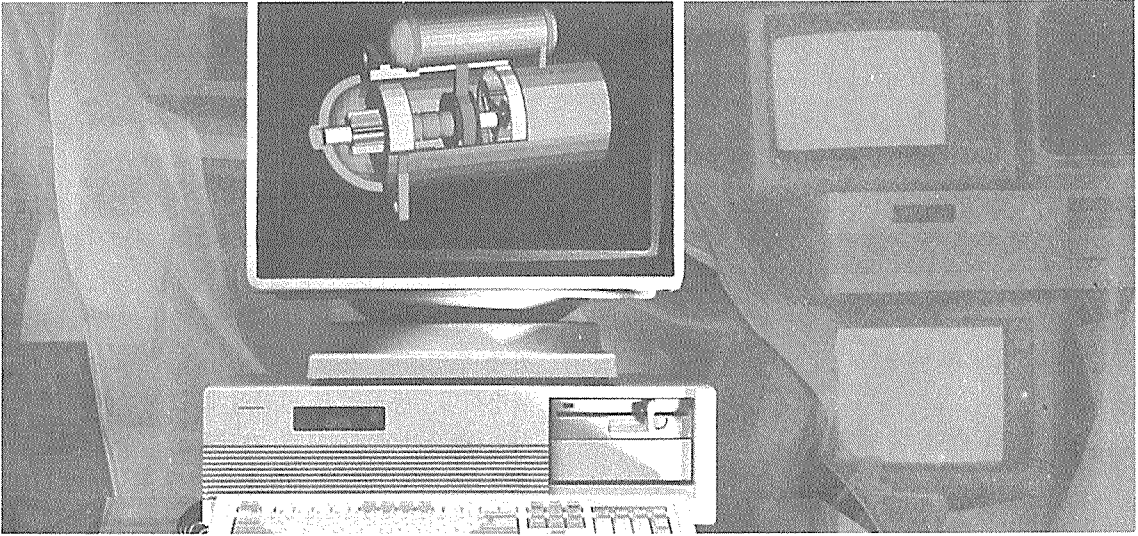
白 萬 基
商工部 情報機器 課長

중소기업
정보화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는
정보화 전담인력의 부족문제이나 정부는
등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약 1만명의
정보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盧대통령께서 年頭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年代에는 명실공히 情報産業이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00年代를 바라보는 첫해라는 점에서 中·長期的인 산업발전기반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政策 비전의 제시와 여러가지 정보화사업의 展開가 필요할 것이다. 商工部는 産業과 貿易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90年代에는 情報産業의 供給측면과 需要측면을 적절히 균형·조화시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즉, 情報産業의 供給의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産業의 知識·두뇌집약화와 高附加價値化를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산업부문과의 균형적인 發展을 도모하고, 需要측면에서는 産業과 貿易의 정보화사업을 汎國家的으로 종합·추진하고 정보화 기반조성을 통한 産業 구조의 개편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政策의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1. 情報機器 産業구조의 高度化

'70年代末 컴퓨터 주변기기의 OEM 生産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의 정보기기산업은 '80年代에 들어서 個人用 컴퓨터의 세계적인 生産基地로 발돋움한 이후 이제 32비트 高級 個人용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과 中型 컴퓨터 및 光 디스크 드라이브, 레이저 프린터 등 尖端 주변기기 위주로 輸出構造를 高度化하는 것이 시급하다. 特히, 원화질상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組立기지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해 가고 있는 反面, 독자적인 設計능력의 未洽으로 매출액의 7%에 가까운 知的所有權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民間과 政府의 더욱 강화되고 치밀한 노력이 要求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투자는 범국가적 범산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政府는 정보기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産·學·研 공동의 大型 기술개발 과제의 추진을 통해 핵심 거점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7월부터 3년간 225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價格/性能比 면에서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분산처리능력을 갖춘 500 MIPS대의 첨단중형 컴퓨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인 人工知能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大型과제로서 知能型 컴퓨터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政府는 高性能 워크 스테이션의 開發 및 輸出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제품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을 活用하여 워크 스테이션의 共通핵심기술인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그래픽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을 개발하여 기업에 移轉토록 할 計劃이다.

둘째, 만성적인 컴퓨터 設計人力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生産技術研究院내에 컴퓨터 설계센터를 設置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규모가 대만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設計人力의 부족과 電子技術研究所(ERSO)

와 같은 연구개발 센터의 不在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中小企業의 애로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생산기술 연구원의 효율적 활용이 艱요하며 서울大學校내의 컴퓨터 신기술 共同研究所와의 協同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컴퓨터 産業組織의 기반강화를 위해 研究開發型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산업계에는 大企業과 업무상 제휴하는 中小開發전담회사(컴퓨터 시스템 또는 주문형 반도체)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회사들은 대량생산설비를 갖춘 대기업과 산업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술저변을 구성하는 산업조직이다. 정부는 금년중에 이와 같은 두뇌집약형 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製造業 次元的 支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80年代의 기술개발위주의 발전구조로부터 진일보하여 이제는 본격적인 産業化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商工部는 공업발전기금과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조업지원정책에 접목시켜 나아가갈 예정이다. 즉, 현재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출입, 유통, 입지,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 제도 속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포함되도록 금년중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수요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과 무역분야의 정보화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3. 시스템 産業의 育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노우하우가 체화된 시스템 산업이야말로 우리 산업계가 指向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이다. 특히, 情報化社會의 핵심사업체인 시스템 인티그레이터(SI)는 시스템의 구축과 사용 및 유지에 필요한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뇌집약형 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군에 대한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의 제시와 이에 따른 政策展開가 시급히 요망된다. 이웃나라 日本에서 자격을 갖춘 SI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세계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SI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세계·금융 지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건축·소방·통신 등에 관한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해소하고 포항제철의 서울사옥 등과 같은 지역별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4. 산업정보화의 촉진

'8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정보화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은 연초의 중소기업 진흥공단내 情報化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展望이다. 특히, 昨年の 個別 정보화사업과 리스사업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업종별 시범사업,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추가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

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확대·발전될 것이다. 동사업에는 '89년부터 5年間 2천억원의 자금(중소기업 構造調整기금)이 지원될 것이며 금년에만 300억원의 자금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무역구조고도화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貿易 自動化사업은 今年 4月中에 무역협회사하에 무역자동화 전담회사가 설립되는대로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여 향후 5年間 2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가칭 "KT-Net"를 完成토록 할 예정이다. 동사업은 민간업체가 主導하여 추진하는 민간전산망이므로 자금확보 및 시스템 운용을 모두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나 向後 국가기관전산망과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의 협조체제도 아울러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 등의 업종별 정보화사업도 본격적인 계획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 VAN사업과 그룹별 VAN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商工部는 금년중에 經營情報學會의 용역사업으로 産業情報化 基本計劃을 수립할 計劃이다.

5. 데이터 베이스 産業基盤의 造成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는 그 規模나 質面에서 先進國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情報의 데이터 베이스화는 汎國家的 차원의 투자와 종합적인 대책없이 조기에 달성되기 어렵다. 현재 산업연구원 附設 産業技術情報센터에서 國內DB의 제작 등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이의 기능보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政府는 금년중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獨立法人化하여 가칭 "산업기술情報院"을 設立할 계획이며 이를 汎國家的인 DB센터로 발전시키고, DB 振興基金을 설치하여 국내 DB의 제작과 유통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同 情報院에는 향후 5年間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産業情報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分野別 전문DB와 연계·운영할 수 있

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지방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산업기술 정보원의 分所형태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발맞추어 점차 獨立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아가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정보화사업에는 지역의 정보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89년에 청주를 시발로 조직화된 地域情報化 研究會를 점차 擴散시켜 주요 도시별로 연구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기업의 정보화 시범사업, 지역정보화 인력양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6. 情報人力의 양성

중소기업 정보화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는 정보화 전담인력의 부족문제이다. 政府는 동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앞으로 5年間 약 1만명의 情報人力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商工部는 人力供給의 擴大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내에 정보화 전담과정을 신설하고, 전자공업진흥회 부설의 컴퓨터 훈련센터를 확대·개편하여 獨立法人化하고 국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發展시킬 예정이다. 또, 情報人力 양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의 活力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정보인력 양성기관 중 일정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정보인력양성전담기관으로 지정·육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훈련 등에 장기저리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전담기관 등에서 배출될 人力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업체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情報人力銀行을 설치하여 취업알선기능을 도입하고 인력양성전담기관을 위한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開發·普及해 나아가갈 예정이다.

7. 標準化 對策의 강구

컴퓨터의 제조와 각종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은 情報化社會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화전문기관인 한국電算院과 전자통신연구소의 기능 擴充과 함께 업종별 단체 및 조합 등이 표준화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만 산업계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것이다. 특히, 향후 컴퓨터 O.S.의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UNIX관련 OSF와 UI의 표준화 동향에 유의하면서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아가고 UNIX 등의 한글화 개발사업 등에 업계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OSI에 관한 국제회의(ISO/IEC)를 유치하여 컴퓨터 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아가며 업종별 EDI의 추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업종별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8. 情報化 促進稅制의 創設

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투자는 몇개 관련 기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汎國家的·汎産業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 투자소요는 향후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日本 通産省의 전망에 따르면 2000年度에는 제조업의 전체투자액 중 정보화 投資가 3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投資促進을 위한 새로운 稅制의 창설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절실하다. 또,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이 개인용 컴퓨터위주로 부터 중·대형 컴퓨터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政府는 '90年代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稅制支援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첫째, 정보화사회의 조성을 위한 조세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관련된 투자액의 상당액을 조세 감면토록 하고 둘째, 정보처리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프로

그럼 開發 등의 손실준비금 적립제도를 신설하며,

세째, 전자계산기 판매손실 준비금제도의 신설을 통해 중·대형 컴퓨터의 기술혁신과 하자 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기술집약산업에 정보처리산업을 추가하고 기술집약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損金算入率을 상향 조정하여 정보처리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다섯째,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特定設備 가운데 산업의 生産性向上 시설범위를 擴大해 산업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高度化와 情報化 投資를 연계·支援토록 政策을 展開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政府의 정보산업 및 정보화 政策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다가오는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5位권의 핵심적인 「情報産業立國」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